

해체수리 앞둔 나주 금성관 '기억을 담다' 촬영전

14일까지...관람객 누구나 참여
국가 보물 마지막 모습 기록 행사
인화 서비스 액자에 담아 증정

조선시대 최대 객사(客舍)이자 보물로 지정된 나주 금성관(錦城館)에서 해체수리를 앞두고 방문객과 함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는 특별한 행사를 열린다.

나주시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국가유산 청 산하기관) 주관으로 14일까지 금성관에서 '보물 금성관, 기억을 담다' 기념사진 촬영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체 수리에 들어가기 전 금성관의 현재 모습을 시민들과 함께 기록·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행사 기간 금성관을 찾는 관람객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장에서 전문 촬영과 즉석 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진은 종이 액자에 담아 기념품으로 증정한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나주 금성관은 조선시대 객사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건축물로 2019년 국가 보물로 지정됐다. 임진왜란 당시 김천일 의병장의 출정식이 열렸고, 명성황후 사해 이후 빙소가 차려졌다. 일제의 한반도 침탈이 본격화된 갑오개혁 당시에는 유생들이 단발령에 대거 항거하는 등 격동의 근현대사까지

품은 '의향 나주'의 상징적 공간이다.

금성관의 창건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목조 기구와 공포 형식은 1775년과 1885년 중수 당시의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각종 기록으로 보아 전제적 인 규모와 외관은 1617년 중수 당시의 형태로 추정되고 있다. 금성관 정청(正廳·객사 건물 가운데 중심 건물)은 조선시대 객사 건축물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팔작지붕을 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맞배지붕의 정청과 대비되는 특징을 갖는다.

나주시 관계자는 "금성관은 수백 년 동안 나주의 역사를 지켜온 상징적 공간"이라며 "해체 전 마지막 모습을 시민과 함께 남기는 이번 행사가 문화유산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조선시대 지방 객사(客舍)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나주 금성관(錦城館·보물 제2037호) 일원 전경.

함평군 '찾아가는 심리 지원 마음안심버스' 출발

심리 상담·스트레스 관리 등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 도움

함평군이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심리 지원에 적극 나선다.

함평군은 지난 3일부터 정신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심리지원 서비스'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심리지원 서비스'는 전문 상담 인력과 상담 장비를 갖춘 이동형 상담버스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심리 상담과 스트레스 관리, 정신건강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복지시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군 보건소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겪는 군민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사업은 12월까지 운영되며 일정에 따라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심리지원 서비스 활동 모습.

마을회관과 복지관, 경로당 등 주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갈 예정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마음안심버스는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 등 군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심리지원 창구"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촘촘한 복지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나주시 '백세 돌봄관리사' 40명 위촉...“어르신 치매 예방”

180개 마을 경로당 주 1회 방문
인지 강화·정서 지원 서비스

나주시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현장 밀착형 치매 예방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나주시는 노인 돌봄과 복지 자격을 갖춘 '100세 돌봄관리사' 40명을 위촉하고, 관내 180개 마을 경로당을 대상으로 '100세 안심경로당'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돌봄관리사는 재위촉 33명과 신규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주 1회 경로당을 방문해 치매 예방과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르신들의 정서적 교류를 돋는다.

'100세 안심경로당' 사업은 치매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익숙한 생활공간인 경로당에서 이웃과 함께 인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돋는 나주시 대표 치매 예방 정책이다. 2023년 시범 사업 운영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지난해 평가 결과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들의 기억력 감퇴와 우울



나주시가 올해 '100세 돌봄관리사' 40명을 위촉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나주시 제공

지표가 개선되고 만족도와 재참여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치매 조기 진단, 검사비·치료관리비 지원,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 안심 학교 운영 등 예방부터 관리까지 통합 치매 대응 시책 추진에도

힘을 쏟고 있다.

나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경로당 중심 치매 예방 사업을 지속 확대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장성군, 설 농특산물 판촉행사
장성몰 20% 할인에 쿠폰 지급

장성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농특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공식 온라인 쇼핑몰 '장성몰'에서 20% 할인 판매를 진행 중이다. 장성 특산물인 사과를 비롯해 배와, 한돈 선물세트 등을 3만~5만원대에 판매한다.

장성몰 회원 가입 땐 5000원 추가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 장성에서 생산한 과일을 직접 살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를 운영한다.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후계소 상·하행선에서 행복장터를 연다.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에서는 16일까지 판촉행사를 진행한다.

서울에서도 송파구(10~11일), 도봉구(11~12일) 직거래장터에서 장성산 농특산물을 홍보·판매 할 예정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화순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모집

3월 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원 규모는 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원이며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된다. 비주택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범위에서 지원한다.

또 본 사업을 통해 슬레이트를 철거한 주택에 대해서는 지붕개량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일반 가구 최대 500만원,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이다.

군은 사업 포기 및 잔여 물량 발생을 대비해 접수 기간 이후에도 신청서를 수시로 접수해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와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군민이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창평고, 7년째 교복 판매 수익금으로 이웃사랑

168만원 창평면사무소에 기탁

담양 창평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교복 나눔판매 수익금 168만원을 창평면사무소에 기탁했다. /사진

창평고등은 지난 2019년부터 졸업생들이 물려 준 교복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며 이웃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올해 역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교복 판매 행사를 진행했고, 모인 수익금 전액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했다.

학생회장 임하람 군은 "졸업을 앞두고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돼 뜻깊다"라고 말했다.

김성민 창평면장은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온정을 전해주는 창평고 학생들과 교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